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지만 혼자 일하는 사람들

김영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미생』의 장그래가 드라마 상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다. 오과장이 회식 후 길거리에서 만난 옆 팀 과장에게 “너희 에 때문에 우리에만 혼났잖아!”라며 고래고래 소리친 말에서 장그래는 ‘우리’라는 표현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시청자는 그 우리라는 표현이 실질적인 의미의 우리는 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장그래에게 만큼은 형식적으로라도 일정한 시간동안 특정한 공간에서 함께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그런 집합적인 관계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분명 벅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디지털 모바일 노동자에게 장그래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던 ‘우리’라는 표현은 사실 성립되기 어렵다. 그것은 디지털 모바일 노동이 집합적이고 관계적이고 의례적인 시공간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노동과 비노동 간의 관계와 관련해 산업사회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간과 여타 남는 시간 간의 ‘분리’다. 대공장으로 표상되는 산업사회 이후 노동시간은 불규칙적이고 불연속적이고 성긴 형태에서 규칙적이고 연속적이고 조밀한 형태로 바뀌었다. 동시에 작업장 내에서 성기고 느슨한 시간이나 ‘낭비적인’ 요소들은 여지없이 제거되고 작업장 밖 여타 남는 시간으로 배치되어야 했다. 이것이 ‘분리’가 함축하는 바다.

그런데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 간의 명확했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노동시간과 여타 남는 시간 간의 구분이 흐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양한 요

인을 들 수 있겠지만, 노동과 비노동 간 경계의 흐려짐은 산업시대 ‘표준화’를 지향했던 노동시간의 패턴이 디지털 모바일 기술을 매개로 ‘비표준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다. 그 변화는 단순한 형태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공통 토대를 삭제하는 방식의 질적인 차이를 내포한다. 여기서는 그 질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 간의 관계가 어떻게 재구조화되는지 일별한다.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노동시간 문제는 디지털 모바일 기술이 유난히 빠르게 파급되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구조변동이라는 맥락에서(이야기 더보기)

신간 안내

『뉴아트행동주의: 포스터미디어, 횡단하는 문화실천』

〈문화/과학〉 편집위원이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교수인 이광석이 『뉴아트행동주의: 포스터미디어, 횡단하는 문화실천』을 펴냈다.



『뉴아트행동주의』는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미디어 저항과 비판적 예술·문화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이 책은 “현실 개입의 사회미학적 관점 아래 기술·미디어와 창작 실험을 좀 더 긴밀하게 접합하는 문화실천의 경향을 이론화하고 그것의 사례 발굴을 국내 현장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의의를 갖는다.”(24)

최근 한국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예술창작과 미디어 표현의 비판적 흐름을 주목한다. 특히 체제 권력에 투입하는 국내 창작·제작자들이(더보기)



‘어벤저스’ 속에 그려진 서울의 생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 4일 만에 300백만 관객을 돌파하며 외화 중 역대 최고의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천만 관객을 기록했던 ‘아바타’, ‘인터스텔라’, ‘겨울왕국’보다 훨씬 압도적인 흥행 속도여서 역대 최고의 흥행 외화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By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어벤저스’에 담긴 서울은 정말 제대로 그려진 것일까? 몇몇 평론가들과 네티즌들은 서울의 본 모습이 영화 속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서울의 고궁, 한옥과 같은 고풍스러운 역사문화유산이 영화 속에 재현되었다면 서울의 이미지가 더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서울의 정형화된 모습은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가 상상하는 미래도시에 부합한다. 고층빌딩과 차로 빼곡한 도심, 바쁜 지하철 안, 첨단 IT 시설과 포스트모던한 공공 조형물이 있는 서울이야 말로, 외국인이 생각하는 서울의 정형화된 이미지이다. 물론 고궁과 한옥도 있지만, 그것은 서울 전체 모습의 일부에 불과하다. 영화 속 서울의 풍경은 스튜디오

에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같다. 서울에서 실제 촬영을 했지만, 정작 영화 속 서울은 거대한 세트장 같다. 내가 보기에 바로 그런 점이 역설적이게도 ‘어벤저스’가 서울을 아주 잘 담은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벤저스’에 그려진 서울은 서울의 모습 그대로이다. 우리는 다소 컴퓨터 그래픽 같은 서울의 이미지 속에서 실제 살고 있다. 세트장 같은 고층 빌딩, 역사적 배려가 없는 그냥 세련되기 만한 첨단 공간들, 숨 막히는 지하철, 삶이 배제된 낡은 철재공장 지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다. 영화 속 서울의 배경이 어색해 보이는 것은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 때문이 아니라, 서울의 공간 자체가 컴퓨터 그래픽 같은 비현실적 모습을 ... (더보기)

문화과학 월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계간 『문화/과학』 정기구독제를 월 후원회원으로 전환합니다.

『문화/과학』은 71호부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편집위원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편집체제로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독자들의 외연의 폭을 넓히려는 대중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계간 『문화/과학』은 정기구독제에서 월 후원제도로 전환하여 출판 재정을 안정화하

고 다양한 독자 서비스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문화/과학』이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문화이론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폭력

편집위원 칼럼

‘그냥’이 맞서다

권명아

(동아대 국문과 교수)

‘고착된 정체성’의 위협에 대해서는 아마르티아 센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는데, 그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들(아시아인, 인도인, 경제학자, 남성, 이성애자 등등) 가운데 단 하나의 분류 범주에 따라 독보적인 정체성을 추출해내서 그 단일한 정체성 속으로 개인들을 밀어 넣을 때 폭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By 김정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



이슬람과 서구의 갈등과 전쟁이라는 ‘문명의 충돌’을 성급하게 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슬람도 서구도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슬람과 서구 내부의 균열, 모순,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은 계급적, 인종적, 종교적이기도 하며 성적 차이와 지적 차이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 함의하는 것은 단지 표현의 자유라는 쟁점에 국한될 수 없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정체성이 어떤 증오 및 폭력과도 결합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장의 약화 내지 붕괴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의 합법적 폭력, 자

본주의의 초과착취,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는 상징적 폭력은 더욱 만연해져 있고,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들을 완화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들은 점차 해체되어 왔다. 이것이 국민국가의 위기, 민주주의의 후퇴, 차별과 배제의 확산 등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증오와 폭력을 감축할 수 있는 정치적 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때 미셸 비비오르카가 명명하듯이 “폭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정치적 의미를 상실한 정치이하적(infrapolitical) 폭력의 증가이다. 어떤 정치적 의미나 효력이 없는...(더보기)

“그냥 와서 피켓만 들고 있다구요. 그냥 이것만 한다구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 은화의 엄마는 그냥 그러고 있다고 내내 말한다.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엄마를, 슬픔을 그냥 마주해야 하는 고통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고통의 크기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유족들이 그냥 슬픔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거저먹으려 든다’고 매도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그냥 준다고 할 때는 도둑이거나 ‘중복’으로 목욕 주기에만 바쁜 실정이다. ‘그냥’은 이유를 따지고 도구적 계산을 앞세우는 입장에서 볼 때 텅 빈 무엇처럼 보인다. 그 텅 빈을 마주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의 무시무시함이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1년, 한국 사회는 서로 상반된 맥락에서, ‘그냥’을 마주하는 섬뜩함에 사로잡혀 있다.

한국어에서 그냥은 공짜나 ‘거저’와 같은 뜻이 아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냥은 단지 부사로서만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담화 표지의 기능을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냥’은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공짜라는 뜻으로 왜곡·축소되었다. ...(더보기)

문화연대 소식, 하나 보러가기 (클릭)

1. 맑스코뮤날레 분과세션 발표 : 문화연대 & 예술인소셜유니온 세션

<예술노동의 일상성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하여>

- 일시: 5월 15일 금요일 13시 30분~15시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D412

2. 문화연대 운동회 개최

3. 문화사회연구소-5월 월례발표회

<‘돌봄’의 정치경제학: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사회효과’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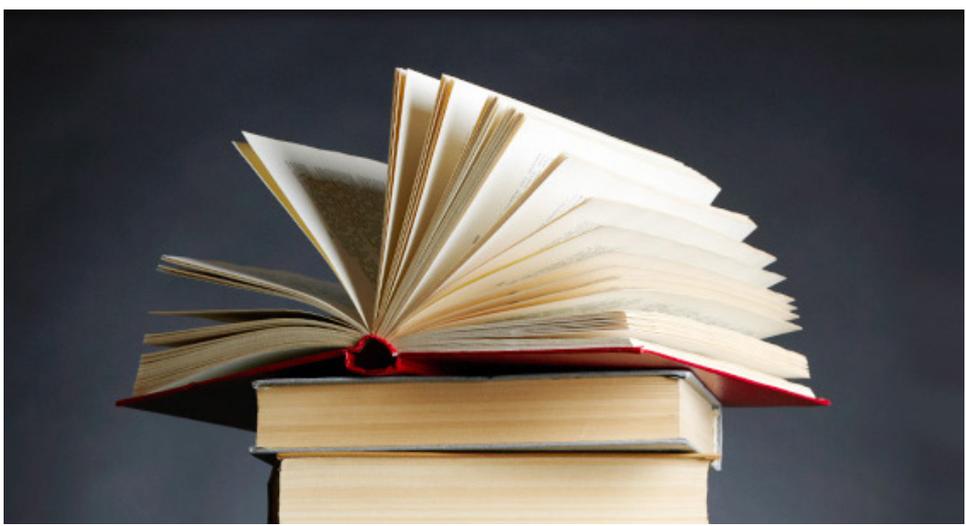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프로파간다

손희정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강사)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은 불쾌와 혐오를 통해 오히려 독자를 매혹시킨다. 그리고 그런 ‘불쾌의 매혹’ 속에서 동성애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구성하며, 동성애자 당사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이런 혐오발화는 지나치게 과편화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왜곡되었거나 편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면서 동성애자 개개인의 삶을 제도적, 실존적인 위기로 내몬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막고 그런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의 주체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그런데 이처럼 ‘혐오의 프로파간다’에 기대는 반동성애/반게이 운동의 중심에 한국 개신교 우파가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과 깊게 연루되어 있는 한국 개신교 우파가 성적 수치심을 경유해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고 ... (더보기)



연구자료

- 각 제목을 클릭하면 연구자료집 원문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함께서울포럼 문화관광분과 포럼 자료집>

함께서울포럼 문화관광분과 포럼
예술인들을 위한 서울플랜

<공공부문 문화예술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문화예술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학예사, 전문직 -

문화연대의 소식, 들 보러가기 (클릭)

문화연대 · 내일신문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중간평가>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문화연대와 내일신문이 공동기획으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이 ‘문화융성’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공동기획 기사를 <내일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 1.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은 어디로 갔나(보기)
- 2. 예술의 위기, 예술기관의 몰락(보기)

신자유주의 리얼리즘과 위기의 대학

최근 몇 년간 캐나다와 칠레, 영국과 유럽 등지에서 등록금 인상과 학과통폐합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2015년 한국의 대학가도 중앙대와 건국대가 앞장서 취업률이 낮은 인문예술계열 학과를 통폐합하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학교본부와 교수·학생들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By 최철웅(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대학가의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생들의 저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부에 비치는 모습과 달리 대학 내부에서의 움직임이나 저항의 동력은 사실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학생운동 조직이 거의 사멸한 상황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운동을 이끌어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관심하다 못해 저항하는 학생들에게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편과 같은 구조적 원인을 지목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절차적 민주주의와 소통에 대한 요구에 머물고 만다. 교육공공성 담론은 여전히 걸돌고 있으며, 대개 학과통폐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거나 막연히 인문학의 중요성을 설파할 뿐이다. 단적으로 말해 오늘날 대학생들 사이에서 신자유

주의 체제는 자연스럽게 정당한 현실로서 당연시되고 있다. 다만 '부수적 피해'를 낳기에 그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뿐이다. 엘리트 지식인들의 상식과는 반대로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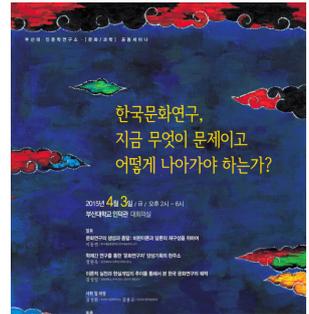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현실주의'가 정치적 이상의 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현실에 대한 저항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지녔거나 몽상적인 태도로서 치부되고 있다. 『갯 리얼—이데올로기는 살아 있다』의 저자 일레인 글레이저의 표현을 빌자면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 없음의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이 새로운 현실주의의 효과는 오늘날 대학가에 팽배한 '반정치 이데올로기'를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더보기)

세미나 후기

일상의 재구성, 담론의 재구성

김일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문화연구는 죽었다. 그러나 다시 문화연구다.”



묘비가 세워진 자리에서 성찰과 희망이 움텄다. 그 현장은 부산이었다. <문화과학>과 부산대 인문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한국문화연구,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가 지난 4월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용규 부산대 영문과 교수가 좌장을, 김성환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세미나에는 약 50여명 이상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문화연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날 부산에서 이동연, 정원욱, 김성일 편집위원은 각각 ①<문화연구의 종말과 생성-비판이론과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②<학제간 연구를 통한 '문화연구자' 양성기회의 현주소>, ③<이론적 실천과 ...(더보기)>

김대성 신임 편집위원 영입, 축하합니다

김대성 편집위원은 현대문학 전공으로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7년 계간 <작가세계> 평론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하였고, 1980년대 노동자들의 글쓰기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생활예술모임 <곳간>의 공동대표, 평론집으로 『무한한 하나- 묶없는 자들의 문서고』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맑스코뮤날레 — <문화/과학>의 분과 세션 일정



제7회 맑스코뮤날레가 오는 5월 15일(금)~17일(일) 까지 서강대학교(금/토)와 성공회대학교(일)에서 개최됩니다.

<문화/과학>의 분과 세션 일정

일시: 5월 16일(토) 오전 10:30~12:30 |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J관) J110

프로그램

주제: 일상의 변혁과 대안문화를 상상하기

사회: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계간 <문화/과학> 편집인)

발표

-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대안을 모색하기(김영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서 대안을 모색하기(강정석, 지식순환협동조합 사무국장)
- 문화행동은 무엇을 꿈꾸었나?—대안문화 행동의 일상적 실천에 대하여(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토론

김성일(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손희정(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강사)

최현정(일상예술창작센터 사무국장)

동정

◆권명아

5월 8일, 교토의 코리아연구 컨소시엄에서 <한국에서의 혐오 발화의 역사적 원천과 그 전개>라는 주제로 발표함.

◆노명우 · 오혜진

4월 17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3회 안전과 생명윤리 포럼-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노명우 편집위원이 발표자로, 오혜진 편집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함.

◆이광석

문화연대와 예술행동공부단 주최로 5월 6일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열린 <저자 이광석과 함께 하는 "Book+Talk+뉴아트 행동주의">에서 발표함. 박활민(삽디자이너), 이원재(문화운동가), 이하(미술작가), 임정희(연세대학교 교수), 차지량(예술가) 등이 '저자와의 수다'에 참여.

◆이동연

4월 22일 문화연대/서울연구원 주최, 예술인을 위한 서울플랜 토론회에서 발제

4월 23일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세운상가군> 포럼에서 '동아시아 전자상가 비교연구' 주제로 발표

4월 29일 문화도시연구소에서 <예술이 도시를 만나다> 주제로 강연

5월 8일 오전 10시 <세운포럼> 5월 세미나 참여 예정

5월 18일 카이스트에서 <문화자립과 어소시에이션 운동> 주제로 특강 예정

◆천정환 · 정원옥

4월 28일, 중앙대에서 열린 <자유인문캠프 오픈토크05-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천정환 편집위원과 정원옥 편집위원이 강연자로 참여함.

『문화/과학』을 만드는 사람

편집자문위원/ 강내희 김세균 손호철 심광현 이득재 임춘성

편집위원/ 강신규 강정석 권경우 권명아 김대성 김성일 김영선 김일림 김정한 노명우 문강형준 박소현 박자영 서동진 서영표

손희정 오창은 오혜진 이광석 이기형 이기훈 이명원 이윤종 이지영 임동근 정원옥 정정훈 조동원 조선령 조형근

주은우 천정환 최영화 최원 최철웅

편집인/ 이동연

발행인/ 손자희

편집/ 연구모임 아프폼(디자인: 그래피크제이) | 뉴스레터/ 정원옥 (디자인: 이안홍빈)